

ML 100번째 등판 덮친 통증... 류현진 2회 자진 강판



LA 다저스의 류현진(가운데)이 9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경기에서 2회 말 2사 후 몸에 이상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인 채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인트루이스전 왼쪽 사타구니 부상 재발... 지난해 3개월 재활 '악몽' 1.2이닝 2실점 승패 기록 없어... 로버츠 감독 "부상자 명단 올릴 것"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부상 악초에 걸려 마운드를 내려갔다. 류현진은 9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했지만, 2회 말 2사 후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날 성적은 1.2이닝 2피안타(1피홈런) 2실점이다. 2-2로 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탈린 플로러에게 넘겨 승패는 기록하지 않았다. 다저스 구단은 "류현진이 왼쪽 내전근(사타구니 근육) 통증으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해에도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2회 왼쪽 내전근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해 조기 강판했고, 3개월의 재활 끝에 8월 1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복귀했다. 류현진은 이날 2013년 메이저리그 입성 후 100번째(선발 99경기, 구원 등판 1경기)로 마운드에 올랐다. 100번째 등판에서 류현진은 코리안 메이저리거 최초로 개막 3연승과 함께 정규리그 개인 최다인 6연승에 도전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통증 탓에 너무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다. 류현진의 바리크 100경기 등판 성적은 42승 2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19다. 류현진은 2회 말 2사 후 마릴스 미콜라스에게 초구를 던진 후, 더그아웃을 향해 '사인'을 보냈다. /연합뉴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마운드로 달려와 류현진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류현진은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돌려본 뒤 '투구가 더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 출발부터 다소 불안했다. 첫 타자 맷 카펜터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1루 땅볼로 처리한 류현진은 상대 2번타자 폴 골드슈미트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앞선 2경기에서 13이닝 무사사구 행진을 벌였던 류현진은 3번째 등판 첫 이닝에서 올 시즌 첫 볼넷을 내줬다. 류현진은 호세 마르티네스를 유격수 땅볼로 요리하며 2루로 향하던 골드슈미트를 잡았다. 그러나 2사 1루에서 마르셀 오수나에게 시속 148km 직구를 던지다 왼쪽 답을 살짝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맞았다. 류현진은 개막전을 포함해 3경기 연속 홈런을 허용했다. 2회에는 해리슨 베이더를 유격수 땅볼, 콜튼 윙을 삼진 처리하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미콜라스에게 초구를 던진 뒤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결국 마운드를 내려갔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경기 끝난 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와 인터뷰에서 "류현진을 부상자 명단에 올릴 계획이다"며 "류현진의 빈 자리는 구원투수 중 한 명을 선발로 올려서 메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골문 비상'

수문장 이진형, 안와 골절 응급 수술... 전반기 공백 불가피

잘 나가던 광주 FC의 수비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는 지난 7일 FC안양과의 2019 K리그2 5라운드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2-1로 앞선 후반 37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승리를 놓치면서 선수들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여기에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선수들의 얼굴은 더 어두웠다. 앞서 4경기에서 2실점의 선방쇼를 펼쳤던 골키퍼 이진형은 전반 25분 상대의 공을 편칭하는 과정에서 수비수 김진환과 충돌했다. 얼굴 부위를 다친 이진형은 바로 운평국과 교체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진을 받았다. 그리고 안와 골절 진단을 받는 그는 광대뼈, 턱뼈까지 골절되면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회복에만 4-6주가 소요되는 만큼 전반기 이진형의 공백은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지난 시즌 많은 경험을 쌓은 운평국이 대기하고 있지만, 이진형이 좋은 페이스로 팀 수비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광주의 아쉬움은 크다. 앞서 안양전이 끝난 뒤 "그동안 잘해준 선수지만 부상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고 안타까워한 광주 박진섭 감독은 "운평국 선수가 작년에 충분히 경기 소화해줬고 잘해줄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시즌 첫 1군... KIA 오늘 NC전 출격 2000경기 출전·팀 우승 목표 "마지막 시즌 유종의 미 거두고 싶어"

KIA 타이거즈 '최고참' 이범호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다. KIA는 9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내야수 이범호를 등록시켰다. 스프링캠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중도 귀국했던 이범호는 재활을 끝내고 뒤늦게 자신의 20번째 시즌을 열었다. "20번째 시즌이자 마지막 시즌인 것 같다"며 1군 합류에 대한 소감을 밝힌 이범호는 "(출발이) 조금

'꽃범호' 돌아왔다

늦어서 그렇지 시즌을 시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웃었다. 20번째 시즌이지만 그라운드로 향하는 그의 설렘은 여전하다. 하지만 올 시즌 그가 바라보는 결승선은 앞선 시즌과는 다르다. 야구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는 '팀'을 생각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범호는 "개인이 아니라 팀 생각하고 밑에서 잘 돕겠다. 그 마음밖에 없다"고 새 출발선에 선 소감을 밝혔다. 이범호는 지난 2000년 한화에서 프로에 데뷔한 20년 차 베테랑이다. 일본을 거쳐 KIA 유니폼을 입은 지 올해로 9년째.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많은 기록을 쌓은 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존경받는 선수다.

뛰어난 리더십과 넓은 포용력으로 선·후배를 아우른 그는 3년 연속 KIA의 주장으로도 역할을 했다.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 2019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만큼 KIA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이범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주장' 김주찬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최고참'으로서 이범호의 어깨는 더 무겁다. 이범호는 "내가 올라와서 경기력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내 할 몫 하면서 분위기 띄워주면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팀을 먼저 이야기 하지만 이범호는 리그에 많은 족적을 남긴 타자다. 이범호는 일본에 있던 1시즌을 제외하고 KBO리그에서 보낸 18시즌 동안 1982경기(역대 14위)에

나와 1721개의 안타(역대 21위)와 328개의 홈런(역대 5위) 그리고 1122타점(역대 8위)을 기록했다. 328개의 홈런 중 17개는 만루 상황에서 터트리면서 '만루 홈런의 사나이'로도 이름을 남겼다. 2위 심정수(127개)를 훨씬 앞서는 독보적인 기록이다. 이범호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욕심은 없다. 앞으로 몇 경기만 뛰면 2000경기를 하니까 그것만 하면 이루고 싶은 것은 다 이루는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야구장에 있는 게 그게 가장 바라는 것이다. 우리 팀이 가장 늦게까지 야구를 하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게 되게끔 안 보이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IA는 올 시즌 성적과 야수진의 세대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경험 많은 베테랑 이범호가 성공적인 2019시즌을 위한 중심에 있다. 경험과 리더십으로 이범호가 20번째 시즌의 아름다움을 마무리를 꾸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괜찮다고 하니까 = 비로 월랜드의 등판이 또 이뤄졌다. 지난 7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준비했던 월랜드는 이날 시즌 첫 우천 취소와 함께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월랜드는 8일 휴식일을 보내고 다시 9일 등판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도 비가 등판을 막았다.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C와의 경기도 비로 취소됐다. 두 번이나 등판이 취소됐지만 월랜드는 10일 예정대로 그대로 출격할 예정이다. 김기태 감독은 "월랜드가 등판 날짜가 밀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고 하더라.

'우천취소 2번' 월랜드 등판... 김기태 감독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대로 등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음 선발진의 등판 순서에는 변화가 있다. 월랜드에 이어 양현종-타이가 출격할 예정이다. '루키' 김기훈은 토요일(13일)에 나선다. ▲그라운드에서 뒹굴 때 그 느낌이라는 게 = 이범호의 복귀가 누구보다 반가웠던 이명기다. KIA는 최근 부진과 부상으로 주축 타자들을 대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덕분에 1987년 생 이명기는 선발 라인업에서 최형우(36)에 이은 두 번째 형님이 됐다. 이명기는 지난 5일 결승 홈런을 터트리

고 "책임감이 막중했다. 형들 빨리 돌아오라고 (기사) 써주세요"라면서 묵직한 책임감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만큼 선수단의 정신적 지주로 역할을 하는 '만행' 이범호의 복귀가 반가웠던 이명기다. "(선배로) 그라운드에서 뒹굴 때 그 느낌이라는 게 (부담이) 상당하더라"고 말하는 이명기에게 이범호도 "고참이라는 게 원래 그런다"며 웃었다. ▲바가지 안타 덕분에 = 포수 한승택의 좋은 타격감의 비결은 '바가지 안타'이다. 방망이 고인미 많던 한승택은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5

개의 안타로 0.357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는 2타점과 함께 3개의 2루타도 만들었다. 한승택은 "지난 KT(3월 31일) 경기 때 바가지 안타가 나왔다. 앞서 안타가 없었는데 운이 따른 안타가 나왔다"며 "타자들 감 안 좋을 때 그런 안타가 나오면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웃었다. 운도 따랐지만 변화도 있다. 한승택은 "예전에는 세계 치게 됐는데 지금은 가볍게 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스윙을 끝까지 하고 있다"며 "작년보다 좋아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